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개SW 프로젝트를 수강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3학년 김법종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때까지만 해도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도 성적이 잘 나왔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기초가 부족해 점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그 해 수능을 본 뒤, 단순히 컴퓨터하기를 좋아해서 전공을 컴퓨터공학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 처음 접하는 C언어 수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고 그 당시에 전공 선택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1학기때는 3점 초반, 2학기때는 더 떨어져서 2점 후반까지 성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상태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운전병으로 입대를 하게 됬습니다. 자대가 사단 사령부여서 높은 분들을 모시게 되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운행을 나갈 때 마다 조수석에서 mp3로 영어를 들으면서 따라 말하시던 참모님,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운동을 하시던 참모님 등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관리에 꾸준히 노력을 하는 모습에 대단하다고 느꼈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비록 인생에서 21개월은 분명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2학년으로 복학한 뒤, 초반에는 프로그래밍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복습하면서 공부한 결과 1학기에는 3점 후반, 2학기 때는 4점까지 학점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실력과 경험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쌓고 항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활에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곳은 드물고, 최근 들어 AI, IoT를 이용한 제품들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등 IT분야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개SW 프로젝트를 통해 그러한 과정을 짧게나마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분명 실수도 많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좋은 정보들과 충고들 새겨 듣겠습니다. 1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